

## 고래가 선사하는 잊지 못할 선물! 제29회 울산고래축제 2025 개막



(재)고래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 (The 29th Ulsan Whale Festival 2025)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고래의 선물(Gift From a Whale)」이란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희망, 용기, 사랑, 행복"이라는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금번에 개최하는 울산고래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가 어우러진 오감형 콘텐츠로, AR 기술이 접목된 개막식과 폐막식, 뮤지컬 갈라 콘서트, 고래열린음악회, 고래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공연이

메인무대 (고래극장) 에서 펼쳐지고,  
이와 별도로 구성되는 " 새우극장과 버스킹존" 에서는 어린이 공연,  
마술쇼, 클래식, 국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또한,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로 축제 기간 매일 두 차례  
진행되는 돌고래 퍼레이드와,

9. 27일 토요일저녁에 열리는 고래 퍼레이드 뿐 만 아니라  
고래가족 가요제, 춤고래 가족 경연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이외에도 미래와 만나는 「스마트 사이언스존과 고래바다 탐험 영상체험」  
에서는 해양 생태계와 미래 기술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 타이탄 로봇과 고래의 선물 그래피티 " 같은 이색 콘텐츠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매일 저녁에는 인기 스타들의 무대가 장생포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9월25일(목)은 남구청 홍보대사인 김다현을 필두로 트롯가수 박지현과  
함께 개막식의 포문을 열고

9월 26일(금) 정훈희와 양지원,

9월 27일(토) 오월오일,

9월 28일(일) 폐막식은 미스터트롯 진 출신인 안성훈이 감동의 공연을  
선물할 예정이다

부대시설로는 축제장 곳곳에 놀이시설, 체험존, 푸드트럭, 치맥존 등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청년과 일반관람객까지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동욱 고래문화재단이사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는

기존 축제의 틀을 벗어난 『생태, 기술, 예술, 공동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담아낸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고래문화재단 고래축제TF(☎ 052-226-199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

---